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문제에의 접근

이미 아이디어를 내서 창조적이라고 인정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잘 분석하여 그중에 배울 수 있는 점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나 발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명과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다. 흔히 위인전기에는 ‘그는 이런 일을 했다. 누구나 해서 안되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쓰여져 있다. 확실히 그와 같은 말은 무엇인가 하고 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발명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에디슨식의 방법이다. 이것은 가능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성취에 전력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웬만큼의 소질을 갖지 않으면 발명광이라는 비난만 사고 일생을 망친다.

나머지 하나는 조직적 방법이다. 한단계씩 꾸준히 노력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것도 실은 이 방법인 것이다.

어느 방법이든 발명의 발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몇 가지의 뛰어난 점이 있다.

그 첫째는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디젤이 아무리 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분야에 흥미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관심분야의 폭은 중요하지 않다. 요는 얼마만큼 심층적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식은 관찰력을 길러준다. 문제에 관심도 갖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아이디어와 발명

발명가는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그 문제의 해결방안이 끊임없이 샘솟는다. 그 중에는 훌륭한 아이디어도 있고, 때로는 전혀 쓸모없는 아이디어도 있다.

전기작가는 드라마틱한 표현을 즐기므로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든가, 와트는 정원을 산보하다가 돌연 증기기관 컨텐서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는 것과 같은 전기를 쓴다.

그러므로 발명가는 그다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훌륭한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발명가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에는 몇 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실로 많고 작은 아이디어 중에서 황금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아이디어를 착상한다는 것은 발명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미인컨테스트에서도 많은 사람이 응시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미인을 고를 수 있는 것이지, 불과 몇 명밖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미인이 선발되는 확률은 훨씬 적게 된다.

발명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함에는 일정 시간에 얼마만큼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순발력을 헤아려서 평가한다.

“ 발명가는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그 문제의 해결방안이 끊임없이 샘 솟는다. 그 중에는 훌륭한 아이디어도 있고, 때로는 전혀 쓸모없는 아이디어도 있다. ”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력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발명력은 얼마든지 신장시킬 수 있다.

아이디어와 발명력의 평가

아이디어와 발명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방법은 간단하다. 여기 붉은 벽돌이 한 개 있다. 「이것이 무엇에 쓰이는가?」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많이 있으면 집을 짓겠지만 하나밖에 없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을 떠나 5분 동안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용도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5개이하.....발명력이 거의 없음. 많은 노력을 요함.

10개까지.....평범함. 노력을 요함.

20개까지.....우수함. 발명인의 길을 택할 것을 권함.

그이상.....매우 우수함. 즉시 발명에 착수해 볼것.

붉은 벽돌 한개의 용도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색의 견본 ▲받침대 ▲주전자받침 ▲도자기 받침 ▲교재 ▲눈금 ▲표적 ▲재떨이 (일부를 파낸다) ▲문패 ▲조형의 소재 ▲연필심 갈기 ▲줄 대용 ▲숫돌 대용 ▲자갈 대용(쪼갠다) ▲가루로 하여 화분 흙 대용 ▲시멘트의 색칠 ▲달구어서 보온용 ▲싸움의 도구 ▲장방형을 가르치는 견본 ▲벽돌장사집의 광고 ▲벽돌장사집의 견본 ▲절연체 ▲베개 대용 ▲자 대용 ▲디딤돌 ▲책상 기울대

의 받침 ▲쇠망치의 대용 ▲쥐구멍 막이 ▲화단 담장의 수리용 ▲가루로 하여 눈에 뿌림(방어용) ▲차명춤용 ▲화장실의 발판(2개로 쪼갠다) 등등 수없이 많다.

이와같은 훈련은 발명력을 늘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변에 있는 물건을 무엇이든 골라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보자. 엉터리같은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이번에는 한장의 신문지를 예로 들어 본다. 이것은 벽돌보다도 훨씬 쉬우므로 적어도 열 가지 이상은 되어야겠다.

▲방석 대용 ▲돛자리 밑에 깔기 ▲견본 종이 크기 대용 ▲변소의 휴지 ▲포장용 종이 ▲모자 대용 ▲커튼 대용 ▲책 커버 ▲식탁 커버 ▲과리잡는 종이 ▲물을 문혀 청소용 ▲종이 점토의 재료 ▲나무에 붙여 인형재료 ▲구두의 습기 제거 ▲통으로 하여 유희에 사용 ▲연료 ▲재생지 원료 ▲종이의 규격 견본 ▲사이즈 견본 ▲붓글씨 연습용 ▲활자의 크기 견본 ▲활자 종류의 교재 ▲상용한자 교재 ▲풀 붙일 때의 밑판 ▲컨닝 발견용(교사는 신문을 읽는 척 하고 실은 조그만 구멍으로 감시한다) ▲직각을 가르친다(신문지의 각) ▲중량의 기준 ▲먼지떨이 만들기 ▲종이 피리 ▲종이 테이프 ▲튀김의 기름받이 ▲흡수지 ▲전등의 갓 등등 비록 엉터리지만 수없이 많다. 그러나 위대한 발명의 시작이 바로 엉터리에서 비롯됨을 간과하지말자. 무엇이든 자꾸 연습을 해보면 차츰차츰 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것은 관찰의 요령이 생기기 때문이다. <♣>